

조선의 수학자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iterature Related to Mathematicians in the Joseon Period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3.1 수학자 관련 문헌의 비교 |
| 2. 수학자 관련 문헌 | 3.2 선생안의 내용 기술 분석 |
| 2.1 수학자 관련 문헌의 간행 | 4. 결언 |
| 2.2 현전의 수학자 관련 문헌 | <참고문헌> |
| 3. 수학자 관련 문헌의 비교 분석 | |

< 초 록 >

국가의 경제를 담당하는 호조에 예속되어 각종 국가의 재정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 하였던 算員, 즉 당시의 수학자 관련 문헌은 진하는 것이 별로 없다. 다만 대표적으로 호조의 취재에 합격한 입격자 명단인 『籌學入格案』, 인사기록물 성격의 전문족보인 『籌學先生案』, 팔세보인 『籌學八世譜』, 그리고 종합보인 『姓源錄』 등을 통하여 그들의 신상정보를 살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가 이후 수학자, 중인 직위와 가계, 수학 관련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서 참고가 되고, 역사기록물의 현대적 활용과 지식정보 콘텐츠화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1) 수학자 관련 문헌의 간행과 『籌學入格案』, 『籌學先生案』, 『籌學八世譜』, 『姓源錄』에 대한 성격과 소장상황을 조사 고찰하였다.
- 2) 수학자에 대한 1차적인 정보원인 입격안과 3종의 선생안을 대상으로 수록범위, 수록인수, 내용구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입격안은 입격년도별 인물정보원이고 선생안은 단계별 승진기록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인사기록 성격의 인물정보원임을 밝혔다.
- 3) 국내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및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의 선생안의 성명, 본관, 가계, 입사년 및 승진사항의 내용기술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의 『주학선생안』이 가장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고 상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要語: 산원(算員), 산학선생안(算學先生案), 선생안, 성원록(姓源錄), 수학, 수학자, 입격안, 주학선생안(籌學先生案), 주학입격안(籌學入格案), 주학팔세보(籌學八世譜)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mkhank@korea.com)

접수일: 2011년 12월 10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Only few documents of Sanwon, the public officials who executed financial and accounting related affairs, in other words, then mathematicians, are available. We can review their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list of people who passed *Hoyo* examinations called *Juhakipkyeogan*, the profiles of each *Sanwon* called *Juhakseonsaengan*, the professional genealogy covering 8 generations called *Juhakpalsebo*, and a comprehensive genealogy called *Seongwonnok*. Henc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modern utilization of historical records and transform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o contents, while being used as a basic reference material for the study of mathematicians, middle class technicians, and mathematics.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was worked on:

- 1) The publication of literature on mathematic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holding status of *Juhakipkyeogan*, *Juhakseonsaengan*, *Juhakpalsebo*, *Seongwonnok* were investigated.
- 2) The coverage of listing, the number of listed people, the composition of contents, etc. of *Ipkyeogan* and three kinds of *Sunsaengan*, which are primary information sources on mathematicians, were analyzed in a comparative way.
- 3) The descriptions of such details as names, family clans, family lines, year of appointment, and promotion at *Seonsaengan* possessed by Gyujanggak in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Library of Congress in the U.S. were analyzed and *Juhakseonsaengan* possessed by the Library of Congress in the U.S. was found to be the most systematic, extensive, and detailed.

Key words: *Juhakipkyeogan*, *Juhakpalsebo*, *Juhakseonsaengan*, *Ipkyeogan*, mathematicians, mathematics, *Sanhakseonsaengan*, Sanwon, *Sungwonnok*, *Seonsaengan*

1. 서 언

1.1 연구의 목적

하급 기술관인 算員¹⁾, 즉 수학자는 호조의 취재를 통하여 입격한 후 호조에 속하여 기본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였다. 『經國大典』 <吏典>에 의하면 이들은 호조 산하의 版籍司, 會計司, 經費司에 배속되어 문무 관료들 입안의 정사를 처리하였다. 관적사는 호구, 土田, 조세, 부세, 貢賦 등을, 회계사는 서울과 지방의 관아에서 비축한 세입 세출의 회계를, 그리고 경비사는 서울 각 관아의 경비지출과 조달 등을 담당하였다.²⁾

일선 공무원이자 하급 기술직이었던 수학자들은 국가 재정 및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무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그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적인 부분은 자세하지는 않다. 다만 취재 입격자 명단인 『籌學入格案』에 기록된 그들의 성명이나 관력, 가족관계 등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일례로 『九一集』, 『嘿思集算法』, 『翼算』, 『借根方蒙求』, 『算術管見』 등의 수학관계문헌을 저술한 洪正夏(1684~?), 慶善徵(1616~?), 李尙燦(1810~?)과 같은 인물만이 중인 수학자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 역시 『籌學入格案』을 통해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籌學入格案』이 역사적 기록물로서 가지는 유일하면서도 귀중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대표적인 수학자 관련 문헌인 취재 입격자 명단으로 『籌學入格案』을 바탕으로 생산된 인물정보원인 『籌學先生案』 외에 다른 관본의 『算學先生案』을 발견하였다. 특히 선생안은 수학자들의 입사 후 단계별 승진상

1) 이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기술직 중인 또는 기술관의 일인으로서 算員, 算士, 籌士 등이라 주로 칭하고, 수학자들은 算學者, 수학자, 때론 중인 산원 등으로 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관련문헌들이 이후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보다 일반적이고 통용되는 용어인 ‘수학자’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이남희, “조선 후기 籌學八世譜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古文書研究』 39호(2011. 8), 189.

황과 자세한 가계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인사기록물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수학자 및 관련집단 이해에 중요한 기록물이자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역사연구와 문헌연구 및 서지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인터넷조사법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수학자 관련 문헌의 간행과 입격자 명단인 『籌學入格案』, 전문 족보성격의 『籌學先生案』, 팔세보인 『籌學八世譜』, 그리고 종합보인 『姓源錄』에 대하여 성격과 현전 소장상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규장각 소장의 『籌學入格案』(古12462)과 규장각과 미국의회도서관 소장의 『籌學先生案』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算學先生案』 등을 대상으로 수록범위, 수록인수, 내용구성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규장각과 미국의회도서관 소장의 『籌學先生案』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算學先生案』의 성명, 본관, 가계, 입사년, 승진사항과 같은 내용기술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단, 선생안의 내용기술 분석은 이상의 내용구성에서 조사된 부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체적인 비교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이후 수학자, 중인가계, 수학 관련 문헌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서 참고가 되고, 역사기록물의 현대적 활용 및 지식정보 콘텐츠화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1.2 선행연구

『朱學入格案』, 『籌學八世譜』, 『姓源錄』 등과 같은 수학자 관련 문헌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사학자와 수학자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료차원으로서의 접근. 『籌學入格案』 또는 『籌學八世譜』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규장각 소장의 『籌學入格案』을 중심으로 태안 이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 영조·정조시대의 算員을 분석 연구하고 있으며,³⁾ 후자의 경우 규장각 소장의 『籌學八世譜』를 토대로 팔세보의 구성과 내

용, 기재 순서와 견상, 관력, 타과합격 등을 살피고 있다.⁴⁾

둘째, 직위차원으로의 접근. 『籌學入格案』과 『籌學先生案』의 기록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산원들의 교육과 취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訓導와 教授 직위를 탐색 및 분석하고 있다.⁵⁾

셋째, 인물의 연구. 입격 연도 미상자에 대한 연구와 조선 산학자 홍정하의 계보에 대한 분석이 있다. 전자의 경우 규장각의 『籌學入格案』을 바탕으로 입격 연도미상자 현황과 조선 초기와 후기로 구분한 입격 연도 미상자들의 입격시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⁶⁾ 후자의 경우 『籌學入格案』, 『籌學先生案』 및 『雜科榜目』의 기록을 활용하여 조선 산학자 홍정하의 계보와 가계를 조사하여 중인산원들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⁷⁾

넷째, 중인 신분과 가계의 연구. 신분의 경우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기술직 중인의 형성과정과 잡과 및 주학의 입격 실태를 고찰하고 있다.⁸⁾ 가계의 경우 중인 종합보인 『姓源錄』을 바탕으로 서울 중인 가계의 유형과 규모 및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다.⁹⁾

이상의 선행연구들 중 일부 논문은 소장 도서관 및 서지사항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 논문은 서명만을 제시하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으며, 또한 주로 규장각소장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3) 黃正夏, “朝鮮 英祖·正祖時代의 算員研究: 『籌學入格案』과 泰安李氏事例 分析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淸州大學校大學院), 1987.

4) 黃正夏, 앞의 책.; 이남희, 앞의 책.

5) 홍성사, 홍용희, “朝鮮의 算學訓導와 算學教授,” 『한국수학사학회』 19권 3호(2006. 8), 1-20.

6) 김두현, “『籌學入格案』의 입격 연도 미상자에 대한 연구,” 『全北史學』 19·20輯(1997), 255-349.

7) 김창일, 홍성사, 홍용희, “朝鮮 算學者 洪正夏의 系譜,” 『한국수학사학회』 23권 3호(2010. 8), 1-20.

8) 김두현, “技術職 中人 身分 研究,” (박사학위논문, 全北大學校大學院), 2001.

9) 김두현, “『姓源錄』을 통해서 본 서울중인가계연구: 중인 가계의 유형과 규모 및 정체성,” 『서울학연구』 39(2010. 5), 41-77.

2. 수학자 관련 문헌

본 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중인 수학자 관련 문헌인 『籌學入格案』의 간행과 현전의 수학자 관련 문헌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수학자 관련 문헌의 간행

관리 등용의 자격시험 제도였던 과거는 고려 광종 9년(958)에 제정되어 조선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하였다.¹⁰⁾ 고려 및 조선 시대에 60갑자가운데 子, 卯, 午, 酉 해에 정기적인 과거인 式年試를 치렀으며, 고려 선종 원년(1084)에 처음 시작하여 조선 태조 2년(1393)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조선 시대의 식년시에는 小科, 文科, 武科, 雜科가 있었으며, 그중 잡과는 전문직 중인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譯科, 醫科, 陰陽科, 律科로 구성되어 당시 신분은 ‘중인’으로 실무 담당 전문직 관료의 양반과 양인 사이의 중간 신분층이었다.

일반적으로 중인이라 하면 이상의 역관, 의관, 음양관, 율관 외에 算員, 畫員, 樂員 등의 기술관과 胥吏, 鄉吏, 庶孽 등도 포함된다. 그중 잡과 중인은 상급 기술관으로 잡과에 합격한 이후, 역관, 의관, 음양관, 율관으로 진출한 본인 및 혈연과 통혼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가계 구성원까지 포함하는 범주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중인으로 하급 기술관의 선출을 위한 잡과는 실시되지 않았고 取材의 방법으로 채용되었다.

취재는 吏曹取才(文官), 禮曹取才(雜職) 및 兵曹取才(武官)로 구별된다. 이는 『經國大典』의 완성으로 정비된 것으로 이조취재는 수령, 외교관, 驛丞, 渡丞, 書題, 蔭子弟, 錄事, 道流, 書吏를 선발하고, 예조취재는 의학, 漢學, 蒙學, 倭學, 女眞學, 천문학, 지리학, 命課學, 律學, 算學을 전공한 기술관 및 畫員, 도류, 樂生, 樂工을 선발하였다.

10) 『高麗史』 卷第73, 選舉 1. “三國以前 未有科舉之法 高麗太祖 首建學校而科舉取士 未遑焉 光宗 用雙冀言 以科舉選士 自此文風始興.”

그중 산학을 선발하는 예조취재의 경우 각 기술학의 전공자인 제학생도와 잡과 합격자인 權知, 전직 기술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각각의 전공 서적들을 시험하였다. 이들은 해당 관청의 취재에 의해서만 그 선출이 이루어졌다.¹¹⁾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성명, 字, 생년간지, 본관, 거주지, 관직 그리고 부모, 형제, 外祖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試官의 관직과 성명, 初試 연월일, 壯元 성명, 試題를 附記하여 나누어준 명단이 '榜目'인 반면, 산원, 화원, 사자관 등은 해당 관청의 취재에 합격된 후 방목과 같은 인적사항 부분을 기록한 명단이 입격안이다. 이중 산원 즉, 수학자의 입격자 명단은 「籌學入格案」으로 19세기 말에 호조에서 간행한 것으로 하급 기술관이었던 수학자 연구에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증인수학자인 홍정하, 경선징, 이상혁 등과 같은 인물은 수학관계문헌을 저술하여 그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상술의 「籌學入格案」을 통해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籌學入格案」이 역사적 기록물로서 가지는 유일하면서도 귀중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수학자 관련 문헌으로 1차 정보원에 해당되는 「籌學入格案」을 기본으로 승진사항을 단계별로 기록하고 있는 인사기록물 성격의 전문족보인 「籌學先生案」(또는 「算學先生案」)과 팔세보인 「籌學八世譜」와 종합보인 「姓源錄」 등이 있다. 다만 「姓源錄」(이하 2.1.2 참조)을 제외한 다른 문헌들은 필사본으로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필사되었는지 자세하지 않다. 단지 이들 문헌에 수록되어 대상자의 「籌學入格案」 상의 년도로 19세기말로 추정될 뿐이다.

한편, 이상의 「주학입격안」과 「주학팔세보」가 포함된 현대적인 색인자료로서 「朝鮮後期曆算家譜·索引」이 있다. 이는 황원구와 이종영이 1991년에 엮은 것으로 曆算家譜인 「別薦案」, 「本廳完薦案」, 「算學先生案」, 「三曆廳先生案」¹²⁾, 「三曆廳許參錄」¹³⁾, 「雲科榜目」, 「雲觀先生案」, 「籌學入格案」, 「籌學八世譜」 등

11) 김두현, “「籌學入格案」의 입격 연도 미상자에 대한 연구,” 『全北史學』 19·20輯(1997), 256, 주1).

12) 조선시대 천문 지리 역수를 담당하던 삼력청 즉, 관상감 관원들의 명단을 적은 기록물이며, 모두 343명으로 으로서 기재 형식은 이름 아래에 자와 생년, 본관, 사조(四祖)의 이름과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 본인의 관력으로 과거합격년, 과거의 종류, 승진 및 관력(三曆官, 訓導, 教授 등), 품계(通政, 嘉議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9종에 대한 색인자료이다.

2.2 현전의 수학자 관련 문헌

현전하는 수학자 관련 문헌으로 취재입격자 명단인 『籌學入格案』, 인사기록물 성격의 전문족보인 『籌學先生案』(또는 『算學先生案』), 팔세보인 『籌學八世譜』와 종합보인 『姓源錄』의 성격과 소장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1 주학입격안

조선시대 과거 중 잡과의 하나인 산학(또는 籌學)의 입격자 명단으로 戶曹에서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전본(<표 1> 참조)의 기록내용으로 미루어 19세기 말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본을 보면 기본적으로 2권 1책으로 권1은 1498년(연산군 4)부터 1783년(정조 7)까지, 권2는 1784년(정조 8)부터 1888년 정도까지의 입격자 명단이다(<표 5> 참조).

주요 내용은 산학 입격자의 성명, 직위, 부, 조부, 빙부의 관직 등에 관한 기록으로 기재방식은 기본적으로 문과나 사마방목의 내용과 같다. 가계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중인 가계가 그렇듯이 세습적인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15세기 말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약 400년간의 기술직 중인 수학자의 개개인과 가계, 직업 및 신분 등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3) 왕의 능행(陵行)이나 각종 사신의 전별연(錢別宴)과 허참(許參)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삼력청 관원의 명단 기록물로서 이름 아래에 일시와 참여한 행사를 적고 있다.

<표 1> 현전 주학입격안의 소장상황

소장처	서명저자사항	간사사항	형태사항	비고
고려대 도서관	籌學入格案 卷2 / 觀象監 編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 16 (1879)]	木活字本 1卷1册(缺帙): 四周單邊 半郭 26.8 × 17.8cm. 有界, 5行小字4行字數不定, 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 34.0 × 21.8cm	육당B8-A48-2
	籌學入格案 卷1 / [著者未詳]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木活字本 1卷1册(全2卷2册): 四周單邊 半郭 26.8 × 17.8cm. 有界, 5行小字4行, 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 35.0 × 22.1cm	成宗-正祖七年 (1783) 대학원 B8 A54
국립 중앙 도서관	籌學入格案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年間[1864 -95]	地方木活字本 2卷2册: 四周單邊 半郭 26.7 × 17.7cm. 行字不同	成宗-高宗十六年 (1879) b12513-39
	籌學入格案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年間(1863 -1907)]	木活字本 2卷2册 : 34.9 × 22.1cm	BC古朝57-가48
규장각	籌學入格案 卷1-2 / [戶曹(朝鮮) 編]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 25(1888)]	希顯堂鐵字 2卷2册: 四周單邊 半郭 26.8 × 18.0cm, 5行字數不同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 紋魚尾 ; 34.7 × 22.2cm	弘治年至光緒 十四年戊子(1888) (光緒五年(1879)부 터 筆寫補) 奎4650-5
	籌學入格案 卷1-2 / [編者未詳]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希顯堂鐵字 2卷2册: 四周單邊 半郭 17.8 × 26.8cm, 5行字數不同, 上下花紋魚尾 ; 34.8 × 22.1cm	成宗-高宗25年 (1888) 古12642

2.2.2 주학선생안

‘先生案’이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서 前任 관원의 성명, 관직명, 생년, 본관 등을 기록한 것으로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전임자를 수록하여 선생안이라 한다. 일명 ‘案’이라고도 하며, 대개 필사본이다.

현전본(<표 2> 참조)에 의하면 「籌學先生案」 또는 「算學先生案」이라 이름하고 있으며,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및 미국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성명, 字와 생년 干支, 입사 및 승진 관직명과 승진간지, 가계, 본관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 관직명으로 訓導, 別提, 教授, 陞案, 直陞, 僉知 등이 기록되어 있다

<표 2> 현전 주학선생안과 산학선생안 소장상황

소장처	서명저자사항	간사사항	형태사항	비고
규장각	籌學先生案 / [編者未詳]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年間(1863-1907)]	筆寫本 1冊(71張): 四周單邊, 有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 32.0 × 20.5cm	古4650-164
국립중앙도서관	算學先生案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책(45張): 四周單邊 半郭 19.4 × 13.6cm, 有界, 10行字數不定, 無魚尾 ; 27.3 × 17.9cm	BC古朝57-가46
미국의회도서관	算學先生案 / 全俊敏(朝鮮)重修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筆寫本 1冊(64張):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 34.0 × 20.2cm	重修記: 歲在庚辰秋本學教授全俊敏記 洋裝으로 改裝함

2.2.3 주학팔세보

‘八世譜’란 문관, 무관, 음관을 考査하기 위하여 그의 八代祖까지 기록한 보첩의 일종이다. 이는 일반 족보처럼始祖를 기점으로 하여 자손들을 아래로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점으로 하여 위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취한다.

주학입격안이 입격자 본인과 생부에 대한 기록만을 대상을 하고 있다면, 팔세보는 8대조뿐만 아니라 外祖 및 妻父도 기재되므로, 본인까지 합해 1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전본(<표 3> 참조)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수록 내용을 보면 각 성관별로 字, 생년, 입격 간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관직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가계 구성원들의 입격년도와 관직도 포함하고 있다.

그중 『醫譯籌八世譜』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19세기 말에 간행으로 醫官, 譯官, 籌學의 가계를 함께 묶어 기록한 중인 족보로서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醫八世譜』, 『譯八世譜』, 『籌八世譜』로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의 책명과 순서가 차이가 있으나 수록 형식과 내용은 같다.

<표 3> 현전 팔세보의 소장상황

소장처	서명저자사항	간사사항	형태사항	비고
규장각	籌學八世譜 / [編者未詳]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筆寫本 1冊(77張) : 37.0 × 24.5cm	4650-36
	籌學譜 / [編者未詳]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年間(1863-1907)]	筆寫本 1冊(50張) : 35.5 × 24.0cm	4650-135
	醫譯籌八世譜 1-3 / [編者未詳]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筆寫本 3冊 : 36.8 × 24.0cm	15186
국립 중앙 도서관	籌學全譜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筆寫本 69張 : 35.6 × 22.4cm	BC古朝66-74
장서각	醫譯籌八世譜 / [編表未詳]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年間(1879) 寫]	筆寫本 線裝不分卷3冊: 四周單邊 半郭 28.8 × 19.5cm, 烏絲欄, 半葉行字 數不定 11段(族譜), 上3葉花紋魚 尾 : 37.3 × 23.5cm	K2-1778

2.2.4 성원록

19세기 들어 당시 새롭게 부상하는 중인계층의 신분의식 강화와 신분상승운동 등으로 기술관 중인의 족보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즉, 『譯科譜』, 『譯科八世譜』, 『醫科八世譜』, 『籌學八世譜』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전문족보 외에 『姓源錄』, 『續姓源錄』과 같은 종합보도 간행되었다.

『姓源錄』은 조선 말기 역관 중인 집안 출신인 李昌鉉(1850~1921)이 지은 성씨 계보책으로 조선시대 중인신분의 전반적인 가계도를 기록하고 있는 종합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양반의 종합보는 『萬姓大同譜』, 『白氏通譜』, 『靑丘氏譜』, 『氏族源流』, 『家族譜』 등이 여러 종류가 있으나 중인의 종합보로는 성원록이 유일하다.¹⁴⁾

14) 김두헌, “『姓源錄』을 통해서 본 서울중인가계연구: 중인 가계의 유형과 규모 및 정체성,” 『서울학연구』 39(2010. 5), 41, 주1).

<표 4> 현전 성원록 소장상황

소장처	서명지자사항	간사사항	형태사항	비고
고려 대학교 도서관	姓源錄/ 李昌鉉 (朝鮮) 編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哲宗(?)	筆寫本 10冊 : 28,0 × 18.0cm	序: ...編者自序 대학원 B13 A42
미국 하버드 엔칭 도서관	姓源錄. 續編 / 李淳命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筆寫本 4冊 : 34.3 × 22.2cm	惠石李淳命舊藏本 TK2290.4-4382

현전본(<표 4> 참조)은 10권 1책으로 양반층을 주로 수록한 계보책과는 달리 역관, 의관, 算官, 율관, 음양관, 書字官, 畫工 등 중인 가계의 계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성씨연구는 물론, 조선시대 천문학, 의학, 역학 등 기술직 및 전문직의 중인관련 연구와 관련 역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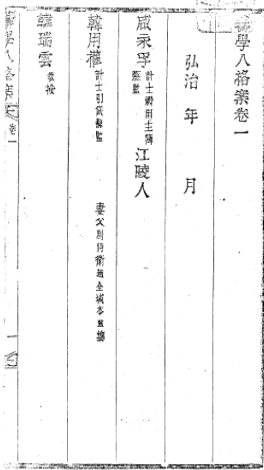
3. 수학자 관련 문헌의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수학자 관련 문헌으로 입격자 명단인 「籌學入格案」을 기본으로 하고 「籌學先生案」과 「算學先生案」을 대상으로 서지사항, 수록범위, 수록인수, 내용구성을 비교하고자 하며, 내용구성의 비교 부분을 대상으로 국내외 소장의 3종 선생안의 내용 기술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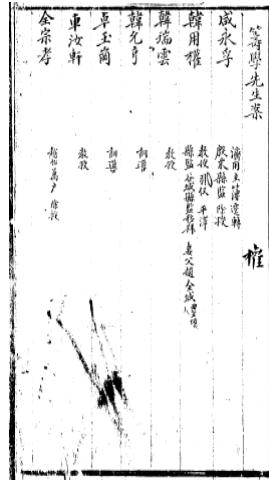
3.1 수학자 관련 문헌의 비교

우선 수학자 관련 문헌으로 입격 명단인 「주학입격안」을 기본으로 하고 「주학선생안」과 「산학선생안」을 대상으로 서지사항, 수록범위, 수록인수, 내용구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주학입격안」의 경우 규장각 소장본(<그림 1> 참조)으로 진행 하고, 「주학선생안」의 경우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규장각본(<그림 2> 참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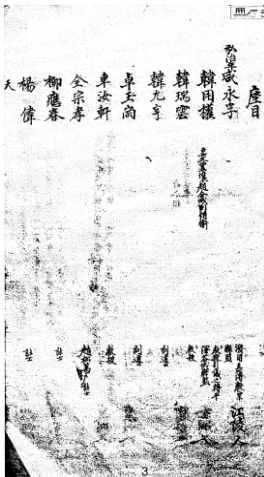
미국의회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의회본(<그림 3> 참조)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산학선생안은 국중본(<그림 4> 참조)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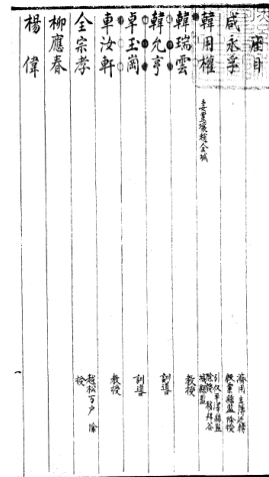
<그림 1> 주학입격안



<그림 2> 규장각의 주학선생안



<그림 3> 미국의회도서관의 주학선생안



<그림 4> 국립중앙도서관의 산학선생안

3.1.1 서지사항

『籌學入格案』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는 호조의 취재에 입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명단이므로 호조에서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籌學先生案』과 『算學先生案』의 경우 전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한 전문족보이자 인사기록물로서 중인 수학자에 대하여 당시 입격안, 족보 등의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명과 관련하여 미국의회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표지에는 ‘算學先生案’으로 되어 있으나 重修記에는 ‘籌學先生案’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算’의 약자로 ‘算’이 쓰이거나, ‘籌’ 중의 ‘목숨수’의 약자가 ‘壽’로 쓰이는 데에서 발생한 오기나 혼용의 문제로 보인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이 표지서명도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별다른 기록이 없어 『算學先生案』으로 채기하였다.

간사년과 관련하여 미국의회도서관의 『籌學先生案』의 경우 권두부분에 중수기 ‘歲在庚辰秋本學教授全俊敏記’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간사년을 추정해보면 이는 고종 17년(1880)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수록범위가 1873년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수하였다는 것은 규장각본이나 국중본과 같은 기존의 『籌學先生案』이 참고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내용기술(이하 3.2 참조)로 보아 현전의 주학입격안이 아닌 또 다른 입격안과 관련된 자료가 유포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¹⁵⁾

관중의 경우 규장각의 『籌學入格案』은 활자본으로 간행하여 배포된 것이며, 그 외 선생안은 3종 모두 필사본으로 규장각과 미국의회도서관 소장본은 사주단변에 유계이다. 이는 내용의 구성(이하 3.1.4 참조)이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이 유사한 반면, 형태의 경우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15) 중수기를 쓴 전준민(全俊敏)의 활동년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나, 광해군(光海君) 병진(丙辰, 1595)에 주학(籌學)에 취재된 전준민이 있으나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3.1.2 수록범위

『籌學入格案』은 각 입격년도별로 입격자를 기술¹⁶⁾하고 있으나 선생안은 모두 입격자명을 앞세워 명감 성격의 인사기록물처럼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의회본만이 시작할 때 ‘弘治年’을 기록하는 등 간간히 연도의 기록이 있다. 따라서 각 선생안의 마지막 성명을 『籌學入格案』의 연도와 비교하여 조사한 구체적인 수록범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수록범위와 수록인수

서명	소장처	수록시작인-- 수록마지막인	수록범위	수록인수	비고
주학 입격안	규장각	咸永孚-- 金麟善	1권: 1488-1505(弘治)-- 1783(乾隆48) 2권: 1784(乾隆49)-- 1888(光緒14)	1권: 859명 2권: 753명	<표 1>의 그 외 『주학 입격안』의 경우 권2 권말부분의 범위와 인수에 차이가 있다.
주학 선생안	규장각	咸永孚-- 李庠鎬	1488-1505(弘治)-- 1869(同治8)	1,168명 권수와 권말 각 16명이 중복기록	연도 기록 무
	미국의회 도서관	咸永孚-- 金準協	1488-1505(弘治)-- 1873(同治12)	1231명	일부 연도년 기록
산학 선생안	국립중앙 도서관	咸永孚-- 李浩達	1488-1505(弘治)-- 1814(嘉慶19)	899명	연도 기록 무

이상의 <표 5>에 의하면 국중본이 대략 300여년을 수록범위로, 규장각본 370여년을 수록범위로, 그리고 의회본이 380여년을 수록범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의회도서관의 『籌學先生案』이 가장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으며 실제 구성과 내용을 살펴봐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3종의 선생안 중 의회본이 가장 늦게 작성되었기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된다(이하 3.1.4, 3.2 참조).

16) 김두현은 “『籌學入格案』의 입격 연도 미상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홍치(弘治), 정덕(正德), 가정(嘉靖), 만력(萬曆), 강희(康熙), 옹정(雍正) 그리고 건륭(乾隆)으로만 구분된 입격자들의 입격시기를 입격 연도 미상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3.1.3 수록인수

규장각 소장의 『籌學入格案』 수록인수는 1,612명이다. 규장각본 선생안은 1,168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의회본 선생안은 1,231명이다. 국중본의 선생안은 899명으로 가장 적은 수록인수를 보이고 있다. 그중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권수부분과 권말부분에 각각 16명씩 중복 기술이 보인다. 특별한 이유는 자세하지 않다(<표 5> 참조).

『籌學先生案』과 『算學先生案』의 수록인수가 주학입격안보다 적은 이유는 첫째, 수록범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각 수록대상자를 조사해보면 선생안의 경우 중간 중간 누락이 보이며, 3종의 누락 정도의 차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 즉, 선생안 중 의회본이 가장 많은 사람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이면서도 충실히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록인수 상의 차이와 누락의 정도에 대하여서는 차후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3.1.4 내용구성

『籌學入格案』의 전체적인 구성은 입격년에 이어 해당 연도 입격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 입격자별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구성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주학입격안의 내용구성

단	내용	글자	줄수	비고
1단	성명	대자	1(2)	초명이 있는 경우 오른쪽에 소자로 표기 초명추가 경우 2줄
2단	자, 생년, 직위	소자	4	생년은 간지로 표기 타과 입격의 경우 줄을 달리해 표기
3단	본관	대자		
4단	부: 관직, 성명 조: 관직, 성명 외조: 관직, 성명, 본관	소자	4	
	처부: 관직, 성명, 본관		4	같은 4단에 '○'로 구분하여 기술시작

『籌學先生案』과 『算學先生案』의 전체적인 구성은 수록해당인의 성명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입격자의 내용구성은 다음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7> 국립중앙도서관 산학선생안의 내용구성

단	내용	글자	줄수	비고
1단	성명	대자	1	일부 성명 오른쪽에 ○○○ 표기
2단	자, 입사년	소자	2	입사년: 간지로만 표기
3단	..자, ..형, ..제 처: 본관, 처부명 조: 명 증: 명 외: 본관, 성명 후: 본관, 성명	소자	2	일부 성명 오른쪽에 ○○○ 표기 '子', '兄', '弟'와 같이 표기하되 그중 하나 표기 이어서 표기하기도 하고, 한 칸 띄고 기술하기도 함 처부의 경우 줄을 달리하여 표기하기도 함
4단	승진기록	소자	2	승진단계별로 기술
5단	본관	대자	1	

<표 8> 규장각 주학선생안의 내용구성

단	내용	글자	줄수	비고
상단	형 또는 제	소자	2	오른쪽 줄에 명, 왼쪽 줄에 형 또는 제 표기
1단	성명	대자	1	
2단	본관, 자	소자	2	본관: 오른쪽에 ○○人으로 표기 자: 왼쪽에 하되 '字' 부기 안함
3단	입사년, 생년	소자	2	입사년: 오른쪽에 간지로 표기, ○○入仕 생년: 왼쪽에 간지로 표기, ○○生
4단	승진기록	소자 특소자	2-4	간지년과 관직명을 단계별로 표기
5단	부: 관직, 명 조: 관직, 명 증조: 관직, 명 외조: 관직, 성명, 본관	소자	1	
	처부: 관직, 성명, 본관 조: 관직, 성명 증조: 관직, 성명 외조: 관직, 성명, 본관	소자	1	

<표 9> 미국의회도서관 주학선생안의 내용구성

단	내용	글자	출수	비고
상단	연도 특이사항	증자 특소자	2 2-4	
1단	성명	대자	1	초명, 개명, 입사년, 특기 등 오른쪽에 소자로 부기
2단	자, 생년	증자	2	자: 오른쪽 표기 생년: 왼쪽에 간지만 표기
3단	..자, ..제, 후 처조: 본관, 성명	소자	2	○○子로 표기+見 ○○祖로 표기
4단	증: 명 처증: 본관, 성명	소자	2	○○曾으로 표기
5단	외: 본관, 성명, 견	소자	2-4	○○外에 이어
6단	입사년, 승진기록			입사년: 간지로 표기, ○○入仕 승진: 간지년과 관직명을 단계별로 표기
7단	본관			○○人으로 표기

<표 6>에 의하면 『壽學入格案』의 경우 4단으로 구성하여, 1-2단에 성명과 입학자 신상정보, 3단에 본관, 그리고 4단에 가족관계를 부, 조, 외조 및 처부까지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표 7>, <표 8>, <표 9>에 의하면 『壽學先生案』과 『算學先生案』의 경우 3종이 대체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중 의회본과 국중본은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그러나 의회본이 국중본보다 더 구체적이며, 3종의 선생안 중 가장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상단에 연도표시가 있고, 본인의 성명 오른쪽에 초명이나 개명을 기록하며, 가족관계의 경우도 본가와 외가를 단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다. 입사년과 승진사항도 별도로 단에서 각 간지년과 함께 상세히 기술토록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본의 선생안은 상단에 ‘兄’이나 ‘弟’를 부기하고 있으며, 5단에 본가와 처가를 구분되게 구성하고 가계상황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기술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3.2 선생안의 내용 기술 분석

앞부분에서 비교한 사항들을 기본으로 규장각과 미국의회도서관의 『籌學先生案』과 국립중앙도서관의 『算學先生案』의 성명, 본관, 가계, 입사년과 승진기록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기술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2.1 성명의 기술

1) 초명, 개명의 경우

『籌學入格案』이 본명 외에 초명이 있는 경우 본명 오른쪽에 소자로 부기하고 있다. 규장각본은 초명이나 개명의 부기가 없는 반면, 의회본은 부기하고 있다.

2)兄과 弟의 이름의 경우

이는 3종의 선생안이 모두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방법에 차이가 보인다. 즉, 규장각본은 상단에 형과 제의 이름을 부기하고 있으며, 국중본과 의회본은 3단의 가계부분에서 형과 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3) 성명 오기의 경우

이는 『籌學入格案』과 『籌學先生案』이 또는 선생안 끼리 서로 다르게 성명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실례로 1812년(嘉慶 19)의 ‘李好基’ 경우로 규장각본은 ‘李彥基’로 ‘彦’ 옆에 ‘好’를 부기하고 있으며, 의회본은 ‘李昌禹’로 기록하되 오른쪽에 ‘好基’라 부기하고 있다. 반면, 국중본은 1814년까지 수록범위로 하고 있으나 이는 누락되어 있다. 字를 살펴보면 의회본은 ‘敬言’, 규장각본은 ‘敬彦’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籌學入格案』을 조사 결과, 이름 ‘李好

基’ 오른쪽에 ‘初名 永基’, 왼쪽에 ‘再名 昌禹’, 그리고 그 아래에 ‘字 敬言’이라 기록하고 있다. 성명이 오기된 사례는 더 많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회본이 보다 정확하게 성명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성명의 경우 누락이나 순서의 뒤바뀜 등의 문제들도 보이며, 선생안의 『籌學入格案』 재현과 선생안 간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3.2.2 본관의 기술

주학입격안은 3단에 본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규장각본은 2단에 그리고 의회본은 7단에 ‘○○人’으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중본은 5단에 다만 본관명만 기록하고 있다. 3종의 선생안 중 의회본과 국중본은 마지막 단에 기록하고 있는 점이 일치하나, 규장각본과 의회본은 기록방법이 일치하고 있다.

3.2.3 가계의 기술

가계사항은 본가, 외가(즉, 처가)로 구분된다. 본가의 경우 형제, 부, 조부, 증부가 기록되고, 처가의 경우 처부만 기록되기도 하고, 처부, 처증부까지 기록되기도 하였다. 3종이 대체적 모두 가계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의회본이 각 단으로 구분하여 매우 상세하게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籌學入格案』이 간략한 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선생안은 이후 입사와 승진 그리고 가계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전문가 집단의 명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까닭으로 보인다.

3.2.4 입사년의 기술

『籌學入格案』이 입격자 명단으로 입격년 순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격년만 제공하고 있는 반면, 선생안은 3종 모두 간지로 표기된 입사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규장각본은 3단에 생년과 함께 입사년을 ‘○○入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있고, 국중본은 2단에 자와 함께 간지로만 기재하고 있어 간혹 이를 생년으로 착각하거나 오인할 여지가 있다. 의회본의 경우 2단에 생년을 간지로만 표기하고 있는 반면 6단에 ‘○○入仕’의 방식으로 입사년을 밝히고, 각 승진단계별로도 간지와 관직명을 기록하고 있다.

3.2.5 승진사항의 기술

승진사항의 경우 『籌學入格案』은 입격자의 마지막 관직명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3종의 선생안은 승진 관직명을 단계별로 기록하고 있다. 국중본은 4단에서 승진 단계별 관직명을 기술하고 있는 반면, 규장각본은 4단에서 간지년과 함께 단계별로 기록하고 있다. 의회본의 경우 6단에서 입사년 간지기록과 함께 승진 간지년과 승진 관직명을 단계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각 승진 단계별 기록이 가장 상세하다.

이상으로 성명, 본관, 가계, 입사년과 승진기록 등의 내용 기술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면 미국 의회도서관의 『籌學先生案』이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하며 정확하다.

4. 결 언

하급 기술관이었던 수학자 관련 문헌은 전하는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취재 합격자인 입격자 명단으로 『籌學入格案』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학자와 수학자들에 의하여 직위, 인물, 신분 및 가계 등의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수학자 관련 문헌인 『籌學入格案』 외에 인사기록물 성격의 인물정보원이자 전문족보인 『籌學先生案』(또는 『算先生案』), 팔세보 성격의 『籌學八世譜』, 그리고 종합보 성격의 『姓源錄』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현전하는 수학자 관련 문헌으로 산학 취재 입격자 명단인 『籌學入格案』, 전문족보인 『籌學先生案』(또는 『算學先生案』), 팔세보인 『籌學八世譜』, 그리고 종합보인 『姓源錄』 등에 대하여 생산과 성격 그리고 현전 소장상황을 살폈다. 『籌學入格案』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籌學先生案』(또는 『算學先生案』)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그리고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2) 『籌學入格案』과 국내의 소장의 3종의 선생안의 비교를 위하여 서지사항, 수록범위, 수록인수, 내용의 구성을 살폈다. 『籌學入格案』이 입격년별 인물 정보원의 성격이라면 『籌學先生案』(또는 『算學先生案』)의 경우 내용 구성을 보면 입격자의 개인정보와 가족정보 외에 상세한 단계별 승진사항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인사기록 정보원임을 알 수 있었다.
- 3) 3종 선생안의 각 내용 기술에 대하여 성명, 본관, 가계, 입사년, 그리고 승진 기록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미국의회도서관의 『籌學先生案』이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고 정확하였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

『算學先生案』.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籌學先生案』. 규장각소장본.

『籌學先生案』. 미국의회도서관소장본.

『籌學入格案』.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籌學入格案』. 규장각소장본.

김두헌. “『籌學入格案』의 입격 연도 미상자에 대한 연구.” 『全北史學』 19·20輯 (1997). 255-349.

- _____. “技術職 中人 身分 研究.” 박사학위논문. 全北大學校 大學院. 2001.
- _____. “『姓源錄』을 통해서 본 서울중인가계연구: 중인 가계의 유형과 규모 및 정체성.” 『서울학연구』 39(2010. 5). 41-77.
- 김창일, 홍성사, 홍용희. “朝鮮 算學者 洪正夏의 系譜.” 『한국수학사학회』 23권 3호(2010. 8). 1-20.
- 이남희. “조선후기 籌學八世譜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古文書研究』 39호(2011. 8). 187-212.
- 잡과방목. <<http://people.aks.ac.kr/front/hae/05.aks>>.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http://www.dibrary.net/korcis/>>.
-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59>>.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홍성사, 홍용희. “朝鮮의 算學訓導와 算學教授.” 『한국수학사학회』 19권 3호(2006. 8). 1-20.
- 황원구, 이종영. 『朝鮮後期曆算家譜·索引』. 서울: 暎文社, 1991.
- 黃正夏. “朝鮮 英祖·正祖時代의 算員研究: 『籌學入格案』과 泰安李氏事例 分析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淸州大學校 大學院. 1987.

